

어머니의 특성 및 자아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 Mother's Characteristics and Self-awareness upon Parenting Stress*

김진경(Jin-Kyung Kim)¹⁾

김혜라(He-Ra Kim)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the effects of a mother's characteristics and self-awareness as they impact upon parenting stress, with the additional aim of creating an appropriat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subjects of the study comprised 2078 newborn children (and their mothers) taken from the 1st year of the Korea Children's Panel.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mother's feeling of pregnancy, her income activity, religion, and educational level impacted significantly upon self-awareness, whereas employment status did not. In addition, the feeling of pregnancy and income activity had a effect on parenting stres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Educational level and religion impacted on parenting stress indirectly through self-awareness. Both employment status and self-awareness were found to have impacted on parenting stress directly.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어머니의 특성(mother's characteristic), 자아인식(self-awareness),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 서 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여성은 신체적, 정서

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출산 후 까지 지속된다. 출산 후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고 한다. 스트레스는 인간생활에 불가피한 요소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과도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²⁾ 대덕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e-Ra Kim, Daeduk College, 68 Gajeongbuk-ro, Yuseoug-gu, Taejeon 305-715

E-mail : junohr@ddu.ac.kr

한 스트레스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게 된다(Lim & Park, 2010). 양육스트레스에는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등이 하위 요인으로 포함된다(Abidin, 1992). 안지영(2001)은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와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성가심, 짜증, 어려움 등의 정도로 정의하면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뿐 아니라 자녀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자녀에 대해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상호작용을 초래한다(Jang, 2005; Kim, 2005).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공격적 반응과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Crnic & Acevedo, 1995; Kim & Doh, 2004), 영아의 어휘발달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 Park, 2010). 이렇듯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발달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가족스트레스 연구회(1994)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을 첫째, 발달에 따른 자녀행동이나 자녀문제의 발생, 둘째,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셋째, 어머니의 개인적 질병이나 사회적 지지의 부족, 배우자 상실과 같은 특별한 사건의 발생으로 분류했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Ahn & Park, 2002; Lee, 2009; Lim & Park, 2010),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문제(Choe, 2002; Lim & Park, 2010; Song, 2006)를 다루고 있다. 자녀의 발달에 따른 문제나 사회적 지지의 부족, 배우자 상실과 같은 사건은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어머니 외적인 요소이다. 양

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개인의 내적인 요소 즉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역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내적인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Cohen과 Willis(1985)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부모의 내적 요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제안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평가적인 측면인데(Pope, MaChale, & Craighead, 1988),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Rosenberg, 1979). 최근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Kim, 2002; Kim, 2005),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기능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기능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처를 잘 하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변화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동요가 적다. 반대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지각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한 자아개념을 지닌 사람은 스트레스와 우울, 여러 질병을 겪게 된다(Park, 1989).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우울, 비행, 폭력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hin,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

(Jeoung, 2004).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Son & Yoon, 1990),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며(Belsky, 1984), 자아존중감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다르므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Shin & Hwang, 2008).

또한, 최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를 둔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신념으로, 부모역할에서 부모가 지각하는 확신감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융통성 있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oon, 1999), 유아의 탄력성(Kim, 2006), 유아의 사회적 능력(Kim & Doh, 2004), 유아의 학습행동(Kim, 2006)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도 관련되는데,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적절한 대처행동을 시도하며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Shin, 1997).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Kim & Do, 2004, Shin, 1997, Ahn, 2001, Choi, 2002).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어머니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는지에 연구는 많지 않다.

Bandura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및 인지적 원천이며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Kim, 2001에서

재인용)이다. 자기효능감이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며(Cutrona & Troutman, 1986),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출산 후 영아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1). 또한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ckson & Huang,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자아인식이라고 정의하고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요인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Raikes와 Thompson(2005)은 가족의 소득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 관계를 조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부모의 내적인 심리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소득 등의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hin & Hwang, 2008).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민감하고 온정적이며 일관된 양육행동을 잘 하지 못한다(Lee & Baik, 1995). 어머니의 외적인 특성이 양육행동과 관련이 된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심리특성과 외적인 특성이 서로 어떠한 연관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내적인 자아인식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임신은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 변화를 야기한다.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고 당황스럽다. 임신 중 겪게 되는 입덧, 몸

의 무거움, 피로함 등은 여성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임신 시 여성의 느낌은 출산 후 산후우울증과도 높은 관련이 있다 (Jung & Kim, 2005). 임신 시 정서상태가 불안할 수록 산후우울증의 출현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임신 시 여성이 지각하는 정서상태가 기쁘고 행복한 느낌이었는가, 불행하고 난감한 느낌이었는가는 어머니의 양육과의 관련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의 종교 활동은 어머니 정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다(Chon & Kim, 2003). 종교 활동을 통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하게 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절대적인 존재와의 소통 뿐 아니라 같이 종교 활동을 하는 주변 인적 자원들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역시 어머니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사회적 지지는 특히 처음 어머니가 되는 어머니의 효능감과 관련되며(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1), 어머니의 부모기로의 전이를 수월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Logsdon & Davis,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 어머니의 종교유무 등의 어머니 특성이 어머니의 정서적 심리특성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 역시 어머니의 내적인 자아인식과 관련이 된다(Ye & Kim, 2007; Chon & Kim, 2003). Chon과 Kim(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학력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정서적인 지원을 추구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취업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정서적인 지원과 자기조절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취업여부가 어머니의 내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특성으로 소득활동 여부, 임신시 느낌, 종교유무, 취업상태, 최종학력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자아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특성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아인식이 어머니의 특성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중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특성(어머니의 임신시 느낌, 소득활동여부, 최종학력, 종교유무, 취업상태)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특성(어머니의 임신시 느낌, 소득활동여부, 최종학력, 종교유무, 취업상태)과 자아인식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일반 조사 대상 가구 중 1차년도(2008년) 조사에 참여한 2,078 신생아 가구이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으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할 장기종단연구이다. 모집단은 2008년에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며(제주도 제외).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2,078 신생아 가구이다.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전국 의료기관 중 분만 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1차 추출단위로 활용하였다.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전국을 6개 권역별(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로 층을 나누어 권역별 연간 분만건수를 비례배정하였다.¹⁾

2. 연구도구

1) 어머니 특성

(1) 임신시 느낌

어머니의 임신관련 느낌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관련된다고 보고되었다(NICHD, 1999). NICHD(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중 ‘Your Pregnancy’ 문항에서 임신관련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을 묻는 문항으로 ‘매우 기뻐함(1점)’에서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5점)’ 척도이다.

(2) 소득활동 여부

어머니의 소득활동 여부는 NICHD(1999)의 문항을 번안한 문항으로 현재 소득활동 여부를 묻는 변인이다.

(3) 최종학력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묻는 문항으로, ‘초등학교(1번)’부터 ‘중학교(2번)’, ‘고등학교(3번)’, ‘전

문대(4번)’, ‘대학교(5번)’, ‘대학원석사(6번)’, ‘대학원박사(7번)’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4) 종교유무

어머니의 종교유무를 묻는 문항으로 통계청(2005)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문항을 발췌하여 구성한 것이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예’,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5) 취업상태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어머니가 주양육자로서의 어머니에게 대리양육이 요구되는 조건인 ‘근무 시간’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시간제 또는 무급가족업 종사자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를 취업 상태로 보았다. 이는 어머니의 육아가능 시간과 이에 따른 대리양육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어머니 취업을 NICHD의 SECCYD에서 30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당 30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취업상태로 삼고, 취업여부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자아인식

이 연구에서는 자아인식을 어머니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지적 및 정서적 평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측정변인으로 하였으며, ‘자아인식’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1)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1986)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 : Baker, Keck,

1)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설계는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용역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년도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된 것임.

Mott & Quinlan, 1993),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 (PSID-CDS : 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 Mainieri & Grodsky, 2006) 등과 같은 해외의 주요 유관패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하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중에서 평정하는 리커트 척도이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한 후 합계하는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본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였다.

(2)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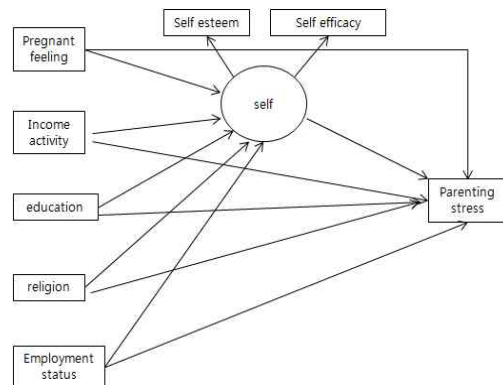
자기효능감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도구는 PSID-CDS II(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에서 이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 Mainieri & Grodsky, 2006). PSID-CDS 1,2차년도 조사에서 0세~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양육자 2,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6, .79$ 이었다. 본 한국아동패널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였다. 어머니가 보고하는 것으로 총 4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의미한다.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이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는데, 신생아를 둔 어머니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한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였다.

3. 연구모형

먼저 어머니의 특성이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1)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특성과 자아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2)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적 모형에 대해 확인적 검증을 하는 통계방법 (Anderson & Gerbing, 1988)이다.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해서 추출된 공통변량을 잠재변수로 사용하므로 측정오류가 통제된다는 점이 구조방정식의 장점이다(Hong, 2000). 본 연구의 변수들의 복잡한 관계를 추론하는데 구조방정식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하였고, 계수의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 CFI, TLI, RMSEA, NFI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구조모형은 모든 구조계수를 측정하는 Full-path Model(포화모형)로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chi^2 = 91.134(df = 6, p < .001)$ 이며, 연구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는 table 1과 같다.

또한, 포화모형의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계수를 제거하여 모형의 간명도를 증가시켰다. 어머니의 최종학력과 종교유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어머니의 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자아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2. 수정모형 분석

포화모형 분석결과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계수를 삭제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의 분석결과, 모형은 $\chi^2 = 88.811(df = 8)$ 이었으며 유의도는 .212로 수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적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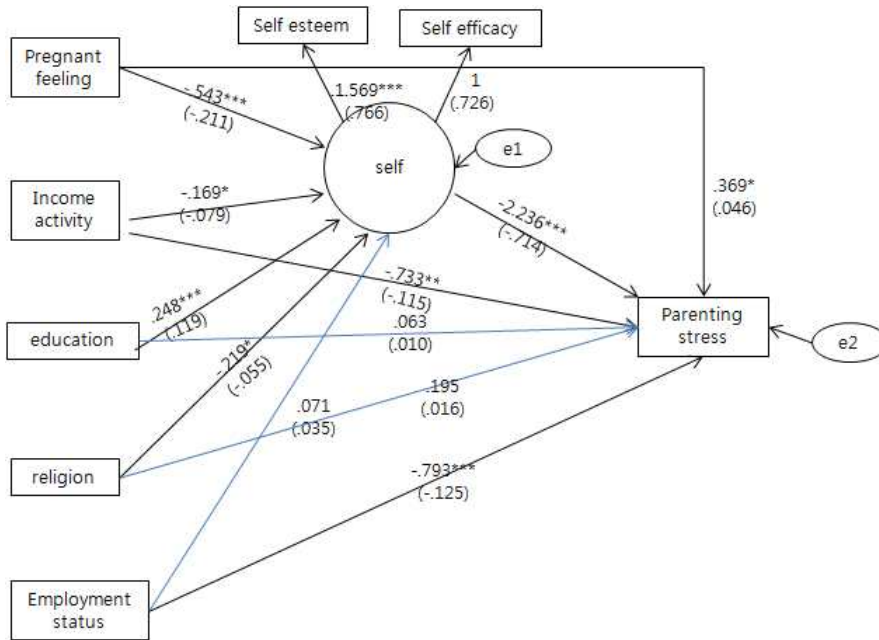
수정모형의 검증결과 유의미한 변수들의 값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통하여 도출된 유의미한 관계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외생변수들 중에서 어머니의 임신시 느낌(-.209, $p < .001$), 소득활동여부(-.092, $p < .001$), 종교유무(-.061, $p < .05$)는 어

<Table 1> The full-path model goodness of fit index

| Model | NPAR | DF | RMR | p | CFI | TLI | RMSEA | |
|-------|------|----|------|------|------|------|-------|------|
| | | | | | | | LO90 | HI90 |
| | 38 | 6 | .045 | .000 | .956 | .738 | .068 | .098 |



<Figure 2> Path coefficients of the full-path model

<Table 2> The modify model goodness of fit index

| Model | NPAR | DF | RMR | p | CFI | TLI | RMSEA | |
|-------|------|----|------|------|------|------|-------|------|
| | | | | | | | LO90 | HI90 |
| | 36 | 8 | .031 | .212 | .958 | .813 | .057 | .0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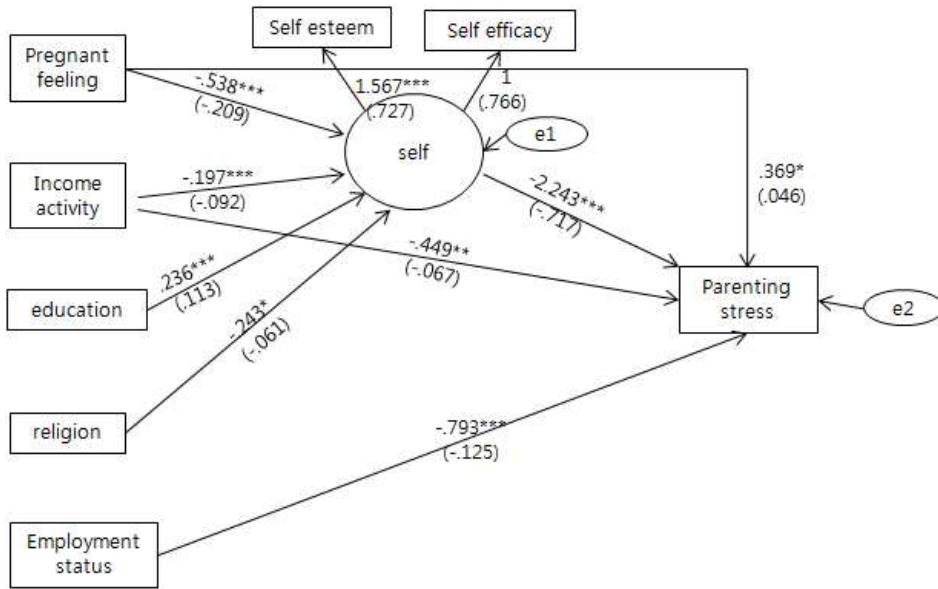
머니의 자아인식과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난감하고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소득활동을 안하는 경우에, 종교가 없는 경우에 어머니의 자아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113, $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자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특성 및 자아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임신시 느낌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046, $p < .05$), 어머니의 자아인식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150). 어머니의 임신시 느낌이 난감하고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자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소득활동여부 역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0.067 , $p < .01$), 어머니의 자아인식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057). 소득활동을 할수록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긍정적이며 양육스트레스가 적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어머니의 양



<Figure 3> Path coefficients of the modify model

<Table 3> Effect of variables in the final modify model (standardization)

| Path | Total effect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
| Pregnant feeling → Self | -0.209 | -0.209 | |
| Income activity → Self | -0.092 | -0.092 | |
| Education → Self | .113 | .113 | |
| Religion → Self | -0.061 | -0.061 | |
| Pregnant feeling → Parenting stress | .196 | .046 | $-0.209 \times -0.717 = .15$ |
| Income activity → Parenting stress | -0.001 | -0.067 | $-0.092 \times -0.717 = .066$ |
| Education → Parenting stress | -0.081 | .000 | $.113 \times -0.717 = -.081$ |
| Religion → Parenting stress | .044 | .000 | $-0.061 \times -0.717 = .044$ |
| Employment status → Parenting stress | -0.125 | -0.125 | |
| Self → Parenting stress | -0.717 | -0.717 | |

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자아인식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085).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인식은 긍정적이며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어머니의 종교유무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자아인식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039). 어머니가 종교는 가질수록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긍정적이며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125, $p < .001$), 간

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에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자아인식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714).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높았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특성과 자아인식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어머니 특성으로는 임신 시 느낌, 소득활동 여부, 최종학력, 종교유무, 취업상태가 포함되었고, 자아인식에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특성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 중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 어머니의 소득활동여부, 어머니의 종교유무는 자아인식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임신했을 때 난감하고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낮았다. 이는 임신 시간 동안 감정이나 기분의 변화가 심한 경우 산후우울증의 발생빈도가 높듯이(Choi & Oh, 2000; Jung & Kim, 2005) 임신 시 난감하고 불행한 느낌을 갖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 자아에 대한 존중감과 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소득활동여부 역시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아인식이 더 낮았다. 어머니는 소득활동을 통해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자부심

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소득활동과 가정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소득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Lim & Park, 2010)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종교유무도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 자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 활동을 하면서 종교 자체가 주는 심신의 안정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자아인식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Woo & Lee, 1994; Chon & Lee, 1999)처럼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자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o(2010)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는 주양육자가 직업이 없는 주양육자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처음 구조모형에는 취업상태가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취업상태가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만 1세 전후의 영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영아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머니의 취업상태가 불안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상태 여부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어머니의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자아인식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이 난감하고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했다. 임신 시 느낌은 출산 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임신 시 느낌이 난감하고 불행한 느낌을 더 많이 지각하는 어머니는 양육이 더 힘들고 고달픈 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임신시 느낌이 어머니 자아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임신 시 느낌이 부정적인 어머니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임신했을 때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는지 여부가 어머니 자신의 긍정적 자아인식을 유도하고 이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임신 시 어머니가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남편의 지지가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Jung & Kim, 2005) 이러한 교육은 부모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소득활동 여부 역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자아인식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어머니가 소득활동을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소득 수준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들(Lee & Choi, 1992; Chon, 1998; Chon & Kim, 2003)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자녀를 양육할 때 경제력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경제력이 부족한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모들은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나는 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을 하는 어머니는 자아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긍정적 자아인식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구조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에서는 최종학력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삭제하여 분석하였다. 즉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자아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전체적인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다르지 않다는 임순화·박선희(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여고생의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것을 볼 때 최종학력 자체만으로 여성 관련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높은 학력을 지닌 사회 주요 구성원이라는 생각은 자아인식을 높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며, 이러한 긍정적 자아인식은 결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머니의 종교유무 역시 수정모형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삭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종교유무는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아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종교 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은 자아인식이 긍정적이며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종교 활동을 통해 어머니들은 절대적인 신

에 의존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뿐 아니라 함께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친목 도모를 통해 일상에서 탈출하고 자신의 내적 상태를 느끼게 되면서 혈압조절 등과 같은 생리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Urich & Dimberg, 1990). 또한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을 얻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오직 자녀양육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보다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하는 여유를 갖는 것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며 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겠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에서는 취업상태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을 분석하였다.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적게 나타났다고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도 발견된다(Ahn, 2001; Lim & Park, 2010; Song, 2006; Song & Kim, 2008). 또한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자녀에게 더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며 체벌의 빈도가 잦다는 연구결과(Jung & Roh, 2005; Min, 2008)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일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어머니가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가정 외부의 사회적 지원이 적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이 없다는 연구(Eom, 1999; Park, 1993)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각기 다른 연구 결과가 나타

나는 이유는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Lim & Park, 2010).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따른 성취감 결여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의 충분한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취업유무 뿐 아니라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각도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어머니의 자아인식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으로 자녀의 발달 문제나 사회적 지원과 같은 어머니 외부 요인을 살펴본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내적 요인인 어머니의 자아인식 자체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바람직한 양육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이나 병원, 사회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또는 예비부모교육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존중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 본다.

참 고 문 헌

- Abidin,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 chology*, 21(4), 407-412.
- Ahn, J. Y.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Ahn, J. Y. & Park, S. Y. (2002).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 53-68.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hoe, H. S. (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ren'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Choi, E. & Oh, J. (2000).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postpartum depression in postpartum women.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 6(3), 358-371.
- Chon, I. O. & Lee, K. O. (1999). The effects of mother-related factors on the self-efficacy of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169-187.
- Chon, K. K. (1998). Life Stress Coping Styles of Housewives. *Rehabilitation Sciences Research*, 14(1), 39-59.
- Chon, K. K. & Kim, K. H. (2003). Life Stress and Coping styles of Korean Housewive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1), 1-39.
- Cohen, S. & Willis, T.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2, 2.
- Crnicek, K.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 book of parenting, Vol.4* (pp.277-297).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Eo, Y. S. (2010),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Family Resilience in Caregivers with Disabled Children. *Emotional behavior disorder research*, 26(1), 209-226.
- Eom, S. H.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Daily Stres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Family Stress Research. (1994). *Mother's Stress*. Seoul : Changjisa.
- Hofferth, S. L., Davis-Kean, P., Davis, J., & Finkelstein, J. (1998).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97 : Users guide. [http :// www.isr.umich.edu/src/child-development/home.html](http://www.isr.umich.edu/src/child-development/home.html)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Jang, H. J. (2005). *The influence of Maternal Belief about Corporal Punishment and*

- Parenting Stress on Child Adjustment Problems mediated by Corporal Punishment : The Moderating Effect to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Jeoung, C. Y. (2004).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mental retarded child mother's stres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Jung, M. H. & Kim, J. I.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renatal Emotional Status, Preparation for Delivery, Post partum Social Support and Post partum Blu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1(1), 38-45.
- Jung, T. Y. & Roh, H. J. (2005). Differences between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Mothers in Parenting Guilt and Behavio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0(2), 211-231.
- Kim, K. M.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s, Home Environment and Learning Behaviors for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tisy.
- Kim, H. M. & Doh, H. S.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 Kim, K. H. & Kang, H. K. (1997). Research :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M. S. (2005).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 The case of those with preschoolers and school-ag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Kim, S. H. (2006).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5(4), 191-209.
- Kim, E. A.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ice Teachers' Self-concept, Learning-style and their Self-effici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ah Womans University.
- Leahy-Warren, P., MaCarthy, G., & Corcoran, P. (2011). First-time mothers : socail support, maternal parental self-efficacy and postnatal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 388-397.
- Lee, J. W. & Choi, D. K. (1992). A Study on Family Life Problem and Stress-level Perceived by Urban Homemake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0(1), 115-130.
- Lee, K. H. (2009).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on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Lee, K. O. & Jeon, I. O. (1999). The effects of mother-related factors on the self-efficacy of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169-187.
- Lee, B. H. & Park, A. J. & Lee, K. H.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n the Family

- Income, Self-Esteem, Role Adaptations, and Identity Formation of the Married Mid-life Women; focusing on employed women.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24(1), 103-120.
- Lee, J. Y. & Baik, J. J. (1997). The Relation between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Family and Mal-Adaption Behavior that Perceived. *Sook-Myung journal of science for better living*, 12(1), 71-93.
- Lim, S. H. & Park, S. H. (2010). The Relation of Mothers' Socioeconomic Status and a Number of Children to Parenting Stress and Toddler's Expressive Vocabulary.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7(1), 251-278.
- Logsdon, M. & Davis, D. (2003). Social and professional support for pregnant and parenting women. MCN,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28, 371-176.
- Mainieri, T. & Grodsky, M.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 : Users guide supplement for CDS-1). [http : //psidonline.isr.umich.edu/CDS/CDS1_UGSupp.pdf](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1_UGSupp.pdf)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Min, E. H. (2008). *The relation between the nursing support and the parenting stress of infants'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won University.
- Moon, H. J. (1999). The Influence of Working Mothers' Socio - 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elf - Efficacy on the Child - Rearing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6), 97-107.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99).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Instrument Document. [http : //secc.rti.org/instdoc. doc](http://secc.rti.org/instdoc.doc)에서 2007년 2월 4일에 인출.
- Park, J. H. (1989). *Perception of Self-Competence in Depress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n University.
- Park, S. O. (1993). *Maternal separation anxiety of the mothers with 6-36 month ag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tisy.
- Pope, A., MaChale, S., & Craighead, W. (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Y : PergamonPress.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 Conceiving the Self*, NewYork : Basicbooks.Inc.
- Shin, J. Y. & Hwang, H. W. (2008). The Effects of Family Incom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Behavior. *Youth Welfare Study*, 10(3), 101-122.
- Shin, S. J. (1997).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Sim, H. O. (1998). Depression among Late - Elementary Children : Relationships with Daily Hassles, Self - Esteem & Social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6), 133-144.
- Son, H. H. & Yoon, J. H. (1990).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Behavior, Self - Esteem & Their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 - Esteem. *Korean Journal of Child*

- Studies*, 11(1), 58-71.
- Song, M. H. (2006).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elf-Efficacy i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 Song, Y. S. & Kim, Y. J. (2008).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Knowledge on Parenting Self-Efficacy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thers, *Ope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13(3), 181-203.
- Statistics (2005).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ttp://meta.nso.go.kr/img/meta_file/josa/Housing Census/Housing Census200501Y/2005%20Population and Housing Census%20Sample Survey.pdf](http://meta.nso.go.kr/img/meta_file/josa/Housing%20Census/Housing%20Census200501Y/2005%20Population%20and%20Housing%20Census%20Sample%20Survey.pdf)에서 2006년 5월 14일에 인출.
- Urich, R. & Dimberg, U. (1990). Psycho-physiological Indicators of Leisure Conseque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1), 154-166.
- Woo, H. J. & Lee, S. (1994). Investigation 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5(1), 71-90.
- Ye, H. K. & Kim, C. Y. (2007). Relations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nt, Self-esteem Re-participant on Women. *Convention Research*, 7(1), 193-210.
- Yi, J. S. & Choi, Y. H. (2010).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3(1), 19-32.
- Yoo, K. J. (2006). *The Influence that the Mother of Infant'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have on the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2011년 12월 30일 투고, 2012년 3월 15일 수정
2012년 3월 25일 채택